

March 2026
No. 373

INSS

전략보고

북한 제9차 당대회의 노동당 지도기관 및 권력엘리트 분석

김인태
tae@inss.re.kr

- I. 문제 제기
- II. 제9차 당대회 절차상 변화 개요
- III. 제9기 당중앙위원회 구성과 특징
- IV. 정치적 함의

북한 제9차 당대회의 노동당 지도기관 및 권력 엘리트 분석

I. 문제 제기

II. 제9차 당대회 절차상 변화 개요

1. 노동당 전당대회 경로와 시기별 변화
2. 9차 당대회 절차상 변화와 주요 특징

III. 제9기 당중앙위원회 구성과 특징

1. 당중앙위원회 선거 및 당·정·군 권력 구성
2. 당중앙위원회 지도기구 구성과 주요 특징
3. 노동당 지도체계 강화 방향과 관련 조치

IV. 정치적 함의

북한 제9차 당대회의 노동당 지도기관 및 권력엘리트 분석

저자 | 김인태

국문 초록

북한은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를 개최하고 노동당의 중앙지도기관인 제9기 당중앙위원회를 새로 선거했다. 당규약상 5년 임기의 당중앙위원회는 250명의 당·정·군 권력 엘리트를 망라하여, 예하 정치국과 비서국, 군사위원회 등 지도기구를 구성했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대 이후 진행된 7차, 8차 당대회와 비교하여 9기 당 지도기관 및 권력 엘리트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9차 당대회는 전통적인 전당대회의 절차에서 부분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현행 의정 총화에 집중하는 형식을 취했다. 둘째, 9기를 “사회주의 전면적발전 고조기”로 정의하고 이에 맞춰 노동당의 ‘전당 강화’를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제시했다. 셋째, 9기 당중앙위원회를 위시한 당·정·군 권력과 지도기구의 정비를 통해 당의 지도력을 강화했다.

종합적으로 제9차 당대회는 노동당의 유일지배체제를 한 층 더 강화하고, 이를 통해 ‘김정은 노동당화’를 진전시킨 중요한 정치적 계기로 평가된다.

향후 5년간 노동당의 ‘전당 강화’ 방향은 김정은 중심의 유일통치구조를 더욱 세련화하며 장기체제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할 것이다. 동시에 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정책목표를 추진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력갱생에 기초한 경제노선의 한계와 내부 동원력의 약화,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불리한 대외적 환경에 직면해있다. 제반 환경을 타개해가며 제9기 노동당 지도기관과 당·정·군 엘리트들이 당대회 결정을 제시한 목표와 시간표대로 달성할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주제어: 9차 당대회, 노동당, 당중앙위원회, 유일지배정당, 김정은 총비서

I 문제 제기

- 북한은 지난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개최된 제9차 당대회를 통해 노동당의 중앙지도기관인 제9기 당중앙위원회를 구성¹
 - 당중앙위원회는 위원 139명, 후보위원 111명 등 총 250명으로 당·정·군의 핵심 직책을 맡은 권력 엘리트들이 망라
 - 제9기 당중앙위원회 구성에는 기본적으로 △유일영도체계 강화 △당정책 결정관철 △체제 역량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이 반영
- 당규약상 5년 임기인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도하는 하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으로 기능²
 - 노동당은 최근 각급 당 지도기관의 ‘임기책임제’³ 성격의 ‘당적 책무수행’ 절차를 강화하며 당적 지위와 기능, 역할 제고에 집중
 - 새로 선거된 9기 당중앙위원회는 5개년계획 중심의 국가발전 목표와 함께, ‘전당 강화’와 ‘인민대중제일주의’ 등 정치 기조를 전담
- 본 전략보고는 제9기 당중앙위원회 구성과 당·정·군의 권력 변화를 분석하고, 노동당 지도체계 강화의 정치적 함의를 고찰

1 이 글은 ‘제9차 당대회 보도자료’를 기초로 작성했다. “간고한 투쟁의 위대한 총화, 새로운 려정의 시작(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 성대히 개막),”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서 한 개회사,” 『로동신문』, 2026년 2월 20일;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 결정서,” “조선로동당 총비서 선거와 관련한 제의서,”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 공보,” 『로동신문』, 2026년 2월 2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의 진행,”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한 결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전원회의에 관한 공보,” 『로동신문』, 2026년 2월 24일; “불굴의 개척투쟁으로 전취한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새로운 려정의 줄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이어나가자(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에 관한 보도),”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서 한 폐회사,” 『로동신문』, 2026년 2월 26일.

2 『조선로동당규약(2021)』, 제14조, 제25조.

3 김정은 집권 이후 노동당 중심의 체제 운영방식이 정례화, 제도화되는 과정에 당중앙위원회를 위시한 각급 당 지도기구의 책임과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전 시기 주로 당·정·군의 주요 직책에 맞게 당중앙위원회 당직(黨職)을 부여하던 절차적인 관례에서 2021년 제8기부터는 당중앙위원회 지도기관 성원의 ‘임기책임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노동당 규약상 각급 지도기관 성원의 ‘임기’ 관련 조항(제14조)은 2021년 제8차 당대회 규약 개정시 처음으로 반영되었다.

II 제9차 당대회 절차상 변화 개요

1. 노동당 전당대회 경로와 시기별 변화

- 북한 노동당의 일당지배적인 특성상 전당대회는 시기별 국가노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권력을 구성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기능
 - 전당대회는 김일성 시대 제도화와 김정일 시대 형해화, 김정은 시대의 복원 과정을 거치며 체제 경로와 시대적 환경을 반영

〈표 1〉 노동당 대회(제1차~9차) 일정 개요(1946~2026년)

구분	개최 기간	주요 의제 (보고자)	참가 대표수
제1차대회	1946.8.28~30 (3일간)	① 북조선로동당 창립에 대한 보고 (김일성, 김두봉) ② 당강령에 대한 보고 ③ 당규약에 대한 보고 ④ 중앙기관지에 대한 보고 ⑤ 당중앙위원회 선거 ⑥ 당중앙검열위원회 선거	801명
제2차대회	1948.3.27~30 (4일간)	①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결산보고 (김일성) ② 북조선로동당 규약 수정에 대한 제의 ③ 북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990명
제3차대회	1956.4.23~28 (6일간)	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결보고 (김일성) ②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결보고 ③ 조선로동당 규약 개정에 관한 보고 ④ 당중앙지도기관들의 선거	914명
제4차대회	1961.9.11~18 (8일간)	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김일성) ②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③ 공화국 인민경제발전 7개년계획에 대하여(1961-67년) ④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1,230명
제5차대회	1970.11.2~13 (12일간)	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김일성) ②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③ 공화국 인민경제발전 7개년계획에 대하여(1961-67년) ④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1,871명
제6차대회	1980.10.10~14 (5일간)	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김일성) ②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③ 조선로동당 규약개정에 대하여 ④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3,220명 (방청자 참석)

구분	개최 기간	주요 의제 (보고자)	참가 대표수
제7차대회	2016.5.6~9 (4일간)	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김정은) ②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③ 조선로동당 규약개정에 대하여 ④ 김정은동지를 우리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데 대하여 ⑤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5,054명 (대표자 3,667, 방청자 2천명)
제8차대회	2021.1.5~12 (8일간)	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김정은) ②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③ 조선로동당 규약개정에 대하여 ④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7,000명 (대표자 5천명 방청자 2천명)
제9차대회	2026.2.19~25 (7일간)	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김정은) ② 조선로동당 규약 개정에 대하여 ③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7,000명 (대표자 5천명 방청자 2천명)

출처: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보도자료 참조.

- 김정은 시대 3차례 전당대회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당’인 노동당의 세습적 성격을 재확인하고 유일체제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를 제도화
 - 대회의 의미는 △7차 당대회/당-국가체제 공식화 △8차 당대회/유일체제 강화 △9차 당대회/장기체제 기반 강화 등으로 구분
 - 특히 이번 9차 당대회까지로 노동당 중심의 권력구조와 통치시스템의 제도화 과정이 한 층 더 강화⁴

2. 9차 당대회 절차상 변화와 주요 특징

- 이전 7차, 8차에 비해 9차 대회의 절차상에서 부분적인 변화 발생
 - 당대회 소집 결정(26.6) 이후 약 8개월 만에 개최, 7차(6개월), 8차(5개월)에 비해 최장 준비기간 소요(8차 당규약 ‘수개월 전’ 개정)
 - 중점은 △대남(조국통일) 의제 제외(역대 전통 의제) △전당대회 전통 형식 축소 △‘의정1 토의’에 집중 등의 절차상에서 변화를 보임

4 본 연구에서는 각 구성요소들이 상호작용하거나 상호의존하여 복잡하게 얽히고 통일된 하나의 집합체(unified whole)로서 시스템 개념을 북한의 노동당 지도기구의 구성, 작동체계의 운용과정과 결부했다. 또한 노동당 중심의 ‘통치시스템(a Party-Government System)’의 운용방식과 비교했다.

〈표 2〉 9차 당대회 개최 및 절차상 변화

구분	주요 특징(8차 vs 9차)	비고
대표자(5천명)	▪ △군 16.2% 증 △현장 일군당원 4.7% 증	▽근로단체일군대표 등 減
집행부(39명)	▪ △당·정·군 비율 유사 △교체 59%(23명) ▪ △3기 연임 5명(김정은, 최룡해, 리일환, 리병철, 김덕훈) ▪ △여성 2연임 1명(김여정)	8차 교체율/74.3%
주석단(111명)	▪ △위성정당 외 반민전대표 제외	7차/8차 반민전대표 포함
서기부	▪ △5명(당 중요부서 부부장들로 구성)	7차/8차 당·정 배치
대회 의정	▪ △토의 의정 3개 축소(역대 최소)	2차/3개
의정1/체계	▪ △사업총화보고 '조국통일과업' 제외(역대 최초) ▪ △대외관계·대남 포함(역대 최초) * 8차 보고/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대외관계 발전	2차/국내정세 (조국통일문제 중점)
토론자	▪ △토론자 19명 최소 규모(서면토론 14명 포함) △육성 토론자 5명만 진행	7차/40명, 8차/22명
부문별 협의회	▪ △부문별 연구 및 협의회(10개)	8차/7개
보도 방식	▪ 당대회 내용 요약·축소 보도(8차/‘당내본’ 방식)	7차까지 전문 공개

■ 당 지도기관의 ‘임기책임제’⁵ 방식, 당대회 의정 총화의 효율성 강화

- 의정① 사업총화보고 제기 사전에 8기 당결정집행정형을 부문별 ‘자료 통보’ 형식으로 전달(당대회 새로운 방식)⁶
- 당중앙위원회를 위시한 각급 지도기관의 ‘임기책임제’ 방식의 제도화로 △당중앙 위상 강화 △책무(당 정책) 수행 독려 △당·정·군 권력 엘리트 통제·관리로 당 지도체계 → 유일영도체계 효율성 추구

5 「조선로동당규약」에 중앙지도기관의 ‘임기’ 관련 용어는 2021년 제8차 당대회 규약에서 처음으로 명시된다. 제14조 “각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④ “...각급 당지도기관의 임기는 새로운 당지도기관을 선거하기 전 까지이다.”로 세부 내용을 신설했다. ‘임기책임제’는 노동당 지도기관의 운영에서 나타는 특히 동향으로 필자가 관련 용어로 정의했다.

6 통상 노동당 전당대회는 개회와 함께 기본 의정인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로 시작되는 것이 관례였다. 김정은 시대 이후 7차, 8차도 동일한 회의방식을 유지했으나, 이번 9차에서 처음으로 ‘중요보고’(자료통보)를 김정은 총비서의 사업총화 보고 전에 제기했다.

- 또한 △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7차, 8차 비교)⁷ △1차 정치국회의 결정서 초안 심의(8기/6개월 후 1차회의)⁸ 등 전당대회 이후 인사를 중심으로 진행하던 지도기구의 1차회의도 ‘확대’ 형식으로 변화
- 기타, △당규약 개정(당중앙지도기관 권능 · 사업체계 규제) △당내 기구사업 토의 · 결정 △중앙지도기구 △인민군 주요 직제 임명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 내각 간부내신안 심의 · 결정(8차/당 인사만 진행)

7 통상 당대회에서 새로 구성된 중앙지도기관이 개최하는 1차 전원회의는 ‘당중앙위원회 구성’ 등 조직문제와 당 기구문제 등을 위주로 취급했으나, 제9기 1차는 처음으로 ‘전원회의 확대회의’(2.23)를 개최하고 △당중앙위원회 구성 및 인민군 주요 직제 인사 △’26년도 사업계획 토의 △당중앙위원회 구호집, 당규약해설집 수정 △최고인민회 및 내각구성 내신안 심의 등 조직문제와 정책 현안논의를 병행했다.

8 제9기 제1차 정치국회의(2.25)에서는 △9차 당대회 결정서 초안 심의 · 확정 △인민경제 20개 주요부문별 5개년계획 초안 검토 · 승인 △’26년도 사업계획 결정서 채택 등 앞선 제1차 전원회의 논의내용들을 심의 ·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III 제9기 당중앙위원회 구성과 특징

1. 당중앙위원회 선거 및 당·정·군 권력 구성

■ 제9기 당중앙위원회의 임명과 당·정·군 구성 비율

- (당 중앙위) 위원 139명, 후보위원 111명 선출, 250명 중 139명(8기 대비 약 56% 교체) 신규 임명자(위원 54명, 후보위원 85명)⁹

〈표 3〉 제9기 「당중앙위원회」 당·정·군 부문별 주요 직책 구성

구분	당	정	군
위원 (13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부서 비서·부장 전원, 중요 부서 1부부장·부부장 일부 검사위원, 당보 책임주필 도(직할시)당 책임비서 13명 중요 연합기업소(시·군 지역)·공장 당책임비서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내각 총리, 부총리급 전원 위원회·성 상급 일부 최고검찰소장, 최고재판소장 평양시 인민위원장 중요 연합기업소 지배인 일부 김일성대, 김책공대 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상, 1부상(후방, 군수동원) 총정치국장, 조직부국장·선전부국장, 보위국장 총참모장, 1부총참모장(작전, 정찰 등), 부총참모장, 해군·공군·전략군사령관 국가보위상, 사회안전상, 사회안전성 형사수사국장 제2경제위원장, 미사일총국장, 국방과학원장, 핵무기연구소장,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장 등
후보위원 (11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부서 부부장 다수 중요 시·군당 책임비서(道 소재지, 군수, 시범지역 등) 일부 성·중앙기관(도급 기능 수행단위) 당 책임비서·당비서 일부 중요 공장·기업소 당 책임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성 상·책임자급 일부 도(직할시) 인민위원장 전원 도 농촌경리위원장(황남 등) 일부 근로단체 위원장(청년동맹 등) 중요 공장·기업소 지배인 국가과학원장, 농업과학원장 주중·주러 대사, 우당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성 부상, 부총참모장 일부 대연합부대(군단·사단 등) 부대장, 1여단장 중요 군수단위 지배인, 국가우주개발국장 등

출처: 통일부 『북한 주요 인물정보(2021-2025)』,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참조.

9 2021년 8차 당대회 당중앙위원회 교체 비율은 7기 대비 약 66.4% 수준이며, 제9기 당중앙위원회 250명 중 김정은 시대 3기 연임자(7기~9기)는 약 33명(약 13%)으로 구분된다.

- (주요 부문) △당/전문부서 부장(1부부장·부부장 일부) △정/성·중앙기관, 주요 부문·지역 책임자급, 주요국 대사(중·러) △군/지휘부(국방성·총정치국·총참모부) 및 군단장 이상이 당연직으로 포함
- (주요 지역) 道 지역 당·행정 책임자 외, △주요 도시 당 책임비서 △곡창지대 농촌경리위원장(황남·황북 등) 등 중요도로 차등 선발
- (주요 단위·기관) △핵·군수 주요 기관 △공장·기업소 중요 단위 △과학 부문(국가과학원장 등) △교육 부문(김일성대 총장 등) 포함
- (주요 특징) 8기 대비 부문별 구성 중, 당 중앙위 위원(139명)에서 대연합부대 군단장급을 후보위원(111명)¹⁰으로 낮추는 대신, 성·중앙기관 위원장·상 등의 행정관료를 위원급으로 승격
- 참고로, 김정은 시대 3기 유입자(7기~9기)는 총 33명으로, △당/14명 △정/7명 △군(군수)/12명이며, 비율은 당 → 군부 순위¹¹

■ 부문별 구성은 8기와 유사한 수준에서 당·정 중심의 권력 비중 유지

〈표 4〉 노동당 제7기~제9기 「당중앙위원회」 구성 비교

구분		제7차대회 (2016.5.9)	제8차대회 (2021.1.10)	제9차대회 (2026.2.23)
구성	총수	250명	250명	250명 ¹²
	위원	129명	139명	139명
	후보위원	106명	111명	111명
	검사위원	15명	(검직/15명)	(검직/15명)
부문별	당	68명(27.2%)	83명(33.2%)	90여 명(약 36% 수준)
	정	114명(45.6%)	114명(45.6%)	100여 명(약 40% 이상)
	군 ¹³	68명(27.2%)	53명(21.2%)	50여 명(20% 이상)
	*여성	9명(3.6%)	6명(2.4%)	7명(2.8%)

출처: 통일부 『북한 주요 인물정보(2021-2025)』,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참조.

- 10 제9기 당중앙위원회 위원(총 139명 구성)에 포함된 군 지휘부(국방성, 총정치국, 총참모부, 군종사령관 등)의 직책은 15명 규모이며, 이하 대연합부대 군단장(사단장)급은 전원 후보위원에 임명되었다.
- 11 제7기부터 9기까지 3기 연임자 33명은 김정은, 박태성, 조용원, 리일환, 김성남, 김재룡, 김정식, 김두일, 김여정, 김병호, 전일호, 고길선, 김정관, 리철만, 김수길, 리영식, 장창하, 왕창욱, 김승두, 방두섭, 노광철, 리영길, 강순남, 김영복, 김광혁, 서홍찬, 윤재현, 리창길, 김광남, 리룡남, 고명수, 리봉춘, 오춘영 등이다. 핵심 당직 이외, 중요 기간산업에서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지배인,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초급당비서 등이 장기 유입했다. 참고로, 이들 33명 중, 2010년 제3차 대표자대회부터 당중앙위원회에 선출된 인물은 3명으로 김정은, 노광철(국방상), 김병호(당 부부장)이다.
- 12 제9기 당중앙위원회 250명 중 신규 139명의 당·정·군 부문별 소속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
- 13 김정은 시대 이후 북한은 군(軍) 부문을 군사와 국방(군수), 공안기구(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등을 통틀어 '무력기관'으로도 혼용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제9기 당·정·군 권력 구성에서도 군 부문에 각급 국방(군수)기관과 공안기관을 포함시켰다.

- <표 4>와 같이 당·정·군 부문별 구성은 8기에 비해 △당은 다소 증가 △행정은 일부 감소 △군 부는 유지 등 부분적인 변화를 보임
 - 9차 당대회에서 강조한 '전당 강화' 차원의 정책적 요구와 인사 기초를 나타내는 것으로, 상기 방향은 9기 중앙지도기구 구성에도 반영
 - △당 중앙지도기관 강화 △세대교체(원로그룹 퇴장) △주요 부문 정비 및 인적 교체(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군사 등 전반 부문)
 - △도(직할시) 당책임비서 △내각 상급 등 주요 당·정 직제를 대거 정비, '당결정 집행'을 기준으로 일선 간부의 책임소재 강화
- 여성 간부의 당 중앙위 비율은 유사, 대표자 구성 등 전체 규모는 감소
- 8차 대비 △여성 대표자 17.6% 감소(8차/501명, 9차/413명) △중앙지도기관 7명(8차/6명) △중앙지도기구 2명(최선희, 김여정) *8차/박명순
 - 기본적으로 7차, 8차에 비해 여성 엘리트의 전체 참여는 감소, 특히 '사회주의애국공로자' 등 '여성 역할' 강조 대비 권력 비중은 제한적

<표 5> 당 중앙지도기관 여성 간부 현황(당대회/1차 전원회의 기준)

구분	주요 직책	위원	후보위원
제7차 당대회 (2016년)	김정임(당 부장)	김정임, 김여정, 홍선옥, 김정숙 (총 129명 중 4명/3.1%)	백봉선, 리혜정, 황순희, 김정순, 오춘영 (총 106명 중 5명/4.7%)
제8차 당대회 (2021년)	박명순 (정치국 후보위원, 부장)	박명순, 김여정, 현송월 (총 139명 중 3명/2.2%)	최선희, 장춘실, 오춘영 (총 111명 중 3명/2.7%)
제9차 당대회 (2026년)	최선희(정치국 위원, 외무상), 김여정(정치국 후보위원, 부장)	김여정, 박명선, 현송월, 최선희 (총 139명 중 4명/2.9%)	전향순, 박명선(동명), 오춘영 (총 111명 중 3명/2.7%)
총 계		총 407명 중 11명/2.7%	총 328명 중 11명/3.3%
	총계(위원, 후보위원) : 3기 연인원 735명 중 22명/약 3%		

2. 당중앙위원회 지도기구 구성과 주요 특징

가. 중앙지도기구의 구성상 변화

- 제9기 중앙지도기구의 역량 강화 및 당·정·군 지도부 재정비
 - 정원 대비 △정치국 43%, 부장 59% 교체 △비서국 확대 △전문부서 정비 등 지도기구체계와 인적 구성상에서 비교적 큰 변화를 보임

〈표 6〉 김정은 시대 당 중앙지도기구 구성 비교(7기~9기)¹⁴

구분	정치국				비서국 (7기/정무국)	중앙군사委	중앙검사委 (7기/검열委)	전문부서
	계	상무위원	위원	후보위원				
7차 당대회	28	5(위원 겸직)	19	9	10	12	7	15 (비서 겸직 6명)
8차 당대회	30	5(위원 겸직)	19	11	8	13	15	19 (비서 겸직 5명)
9차 당대회	30	5(위원 겸직)	19	11	12	11	15	17 (비서 겸직 11명)

- (정치국) △상무위원 김재룡(조직)·리일환(선전) 승진, 군부 인사 無 △위원·후보위원 당·정·군 적정 비율 유지¹⁵

※ 상무위원회에 리일환 비서(선전) 총원, 당중앙위원회에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신설된 이후 조직·선전비서가 함께 선임된 사례는 처음¹⁶

14 중앙지도기구의 구성상 정치국, 비서국, 중앙군사위원회 규모에 김정은 총비서를 포함했다.

15 정치국 30명 중 지난 3기 연임자는 7기 4명(14.3%), 8기 11명(38%)이다.

16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그간 노동당 중앙지도기구로 존속했던 정치위원회를 정치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 상무위원회를 신설했다. 초대 상무위원회는 김일성(총비서), 김일(부주석), 오진우(인민무력부장), 김정일(조직·선전비서 겸임), 리종욱(정무원 총리) 등 5명으로 구성했다. 이후 30년 만에 개최된 2010년 9월 제3차 대표자회에서는 김정일(총비서),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명록(총정치국장), 리영호(총참모장) 등 당·정·군 지도부로 구성했다. 제7차 당대회 상무위원회는 김정은(위원장), 황병서(총정치국장), 박봉주(내각 총리), 최룡해(비서/근로단체) 등 5명으로, 제8차 당대회 상무위원회는 김정은(총비서),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병철(비서/군수담당), 김덕훈(내각 총리), 조용원(비서/조직담당)으로 구성했다. 제7기~8기 기간 상무위원의 변동 과정에서도 당 비서 겸 선전선동부장이 선임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 6차 당대회 당시 당 직무상 조직·선전비서를 겸직한 김정일의 상무위원 임명이 유일한 사례이나, 이는 한 사람이 조직·선전 업무를 맡은 경우이다.

- (비서국·부장) △비서 7명→11명 증원 △비서·부장 겸직제(11명 전원) △국제비서 복원 △근로 단체·건설비서/부장 신설(추정) 등
 - ※ 비서국 정책결정·지도 기능(비서·부장 겸직제), 전문부서 기능·역할 확대
- (중앙군사위) 정치국·비서국에 비해 정경택 당비서의 부위원장 임명 이외, 당 간부는 줄이고 군 부 위주로 군사위원회를 구성¹⁷
- 한편, 9차 당대회 인사는 당 지배구조하 국가권력의 비정상적 측면도 시현(국무委, 최고인민회의, 내각 인사 변동, 헌법상 모순 사례)
 - ※ 최룡해(現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국무委 제1부위원장), 상임위 부위원장(2명), 부총리, 상(위원장) 등이 대거 당직 탈락, 해당 “간부내신안’ 심의·결정 및 새 임기의 최고인민회의에 제의”로 형식상 발표
 - ※ 9기 1차 당전원회의의 결과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선거 공보(3.4) 동향상 새로 구성되는 15기 상임위원회는 조용원(정치국 상무위원), 김형식(前 당 법무부장) 등 기존 당 핵심 관료들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
- 제9기 당중앙위원회의의 교체 변동(8기 대비 56%)에 비해 이하 중앙지도기구의 인적 변동은 비교적 큰 폭으로 진행(8기 대비 약 72%)
 - 제8기 1차 구성 대비 △정치국/11명 △비서국/1명 △군사위/2명 △검사위/5명 △전문부서/2명 △도당책임비서/4명 유입
 - 인적 변동은 비서국 → 군사위 → 전문부서 순위로 리병철, 김영철, 오일정 등 고령자의 세대교체가 기본 비중을 차지

〈표 7〉 제9기 중앙지도기구 및 도당책임비서 유입 현황

구분	제8기 1차 구성	제9기 유입자(8기 1차 vs 9기 1차)	비교(교체 비율)
정치국 (30명)	상무위원 5명	김정은, 조용원	정치국 유입자 총 11명 ¹⁸ (67%)
	위원 14명	박태성, 리일환, 김재룡, 김정관, 정경택, 박정근(승진)	
	후보위원 11명	리철만, 전현철, 리영길(위원→후보위원 강등)	
비서국	비서 7명	리일환	1명(86%)
군사위원회	13명	정경택, 리영길	2명(85%)
검사위원회	15명	리히용, 박광식, 전태수, 정인철, 오동일	5명(67%)
전문부서 부장	19명	김재룡, 김성남	2명(85%)
도·시당책임비서	13명	박성철(황남), 박창호(황북), 리정남(함남), 신영철(라선)	4명(69%)
총 계	97명	25명	약 72%

17 2021년 제8기 1차 당 중앙군사위원회에는 군사, 군수, 민방위 부문 간부 이외 조용원 조직비서, 김조국 조직지도부 제1 부부장이 포함되었다. 9기에는 정경택 당 비서, 최춘길 민방위부장(추정), 김정식 제1부부장 외, 국방상, 총정치국장, 총 참모장, 경찰정보총국장, 보위국장, 사회안전상을 포함시켰다.

18 제7기 1차 전원회의의 정치국 28명 중 9기 연임자는 4명으로 김정은, 박태성, 노광철, 리영길이다.

나. 부문별 인사의 주요 특징

■ (내각) 부총리와 위원회·성 등 주요 기관 행정관료 대거 탈락

- 9기에 탈락한 현직 인사는 부총리 3명(양승호, 김명훈, 정명수) 외, 국토환경보호성, 기계공업성, 도시경영성, 지방공업성, 보건성, 석탄공업성, 수산성, 재해방지성, 철도성, 문화성 등 내각의 약 절반 규모 변동

- 변동은 주로 △기간산업 △주요 정책 부문 등 경제정책을 전담하는 성·중앙기관들에 집중, 경제난 장기화 등 어려운 내부 여건 반영

※ 8기 기간 집중한 건설, 농업, 지방공업 등 주요 성과와는 별개로, 경제 부진과 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 내각·행정의 문제점 이슈화¹⁹

■ (정책) 건설부문 당·정 관료는 약진, 농업부문은 당직 유지

- 건설정책을 총괄하는 김정관(당비서), 박훈(부총리)은 정치국 등에 임명되었고, 양명철 평북 책임비서, 박성철 개성 책임비서는 이전에 삼지연시 건설 등 역점정책을 주관했던 현장경험 등 전문성 고려²⁰

※ 평양시 현대화 등 '김정은표 건설정책'의 중요도와 성과 등 실패 반영

- 주철규(당 농업부장), 리철만(농업위원장)은 정치국에, 김광욱(농업과학원장) 외, 황남·황북 도농촌경리위원장 등은 당 중앙위에 재임명

- 기간산업 등 경제부문 관료들의 변동에 비해 8기 기간 역점과제로 추진된 건설·농업부문은 실적과 전문성, 차기 과제 방향까지 안배

■ (국방) 핵·군수부문 관료 세대교체, 주요 기관 인물은 당직 유지

- 군수부문의 리병철(총고문), 홍승무(제1부부장) 등 고령층 은퇴, 대신 조춘룡·김정식·장창하·고병현·유진·강경호·류상훈·허철용 등은 재임명

- 경제부문의 인적 교체와 변동 대비, 군수부문은 상대적인 근속 연한을 지속하며 9기 당직까지 유지, 핵·재래식무력 병진정책을 주관

19 김정은, "...일군들속에 뿌리깊은 무책임성, 보신주의와 건달풍을 결정적으로 적출해야 하며 그러자면 사상적개변부터 실행시켜야 할것입니다." "통성기계련합기업소 1단계개건현대화대상 준공식에서 김정은동지의 연설," 『로동신문』, 2026년 1월 20일.

20 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새로운 5개년계획의 주요 건설과제와 관련하여 김정은은 "앞으로 2년동안 화성지구를 정치,경제, 문화적기능을 완벽하게 갖춘 행정구역의 표본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건설을 더 진행하면서 주변구역을 조화롭게 연결하고 정리하는 건설도 해야 한다. 전국의 도소재지들을 시대적요구에 맞게 개변시키는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여야 한다." 고 밝혔다.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6년 2월 26일, 상기 방향에 따라 전국의 도소재지 건설을 연차별로 추진하되, 첫 단계 시범지역으로 평북 신의주와 개성시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 (군사) 당직은 부분 감소, 정치지휘관 출신 약진, 경호부대장 배제
 - 군부의 전체 당직 비율은 감소했으나 정치(당) 지휘관 출신인 정경택(총정치국장), 김성기(총정치국 부국장, 군단 정치위원), 박광웅(총정치국 부국장), 유광우(군단 정치위원) 등은 주요 당직에 선임
 - 8기에 임명되었던 호위사령관, 호위국장 등 경호부대 지휘관들이 9기에 탈락, 2025년 이후 호위 사령관 광창식 경질 등 최근 인사 반영²¹
- (지방) 도당책임비서 교체는 업무 실적과 전문성 등 정책방향 반영
 - 평북·황남·함북·량강·개성·남포 등 도(직할시) 당책임비서 6명 교체²²
 - 신규 인물 중, 평북 양명철은 삼지연군(당시) 책임비서·중앙당 부부장, 량강 김룡일 등은 함북 도당비서 출신으로 지방사업 경험 풍부

3. 노동당 지도체계 강화 방향과 관련 조치

- (조직 개편) '전당 강화' 차원에서 당 중앙위 지도적 권능·기능 강화
 - 통상적인 총비서 추대 절차를 제외하면 9기 인사에서 중요 변화는 당 중앙위 지도기구를 기구적·인적 측면 전반에서 강화한 점
 - 특히, 비서국을 확대하고 비서·부장을 겸임하는 전문부서의 '겸직제'²³를 실행, 이는 비서국과 전문부서의 당적 기능 강화에 유리
 - 비서국 전원의 정치국 위원 임명과 조직지도부장·선전선동부장의 상무위원 선임까지로 정치국의 당적 지위와 기능적 측면도 상향
 - 종합적으로, 제9기 당적 목표인 '전당 강화'와 5개년계획의 성과적 추진을 위한 주된 역량으로 '당 지도력 강화'를 선택

21 2025년 이후 김정은 경호와 당중앙위원회 등 수뇌부 경호를 전담하는 '호위사령부' 등 친위부대의 인적 교체 동향이 식별되었다. 호위사령관 광창식(상장)은 라철진(중장)으로, 국무위원회 경위국장 김철규(상장)은 로경철(소장)로, 호위처장 한순철(상장)은 송준철(상장)로 교체되었다. 이들 중 광창식과 한순철은 2021년 제8기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경호부대장 급이 거의 동시에 교체된 이유로는 고령에 따른 세대교체와 함께, 2024년 10월에 있는 '평양 무인기 전 단 살포 사건' 등 평양 위수 임무 실패에 따른 문책성 경질로 예상된다.

22 9차 당대회 이후 당결정관철을 위한 지역별 군민연환대회를 통해 현직 임명이 확인된 도당책임비서는 평북 양명철, 황남 길봉찬, 함북 김두일, 량강 김룡일, 개성 박성철, 남포 서창렬 등 6명이다.

23 이전 김정일 시대를 비롯하여 앞선 8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권력통제와 상호 견제, 책임소재, 업무 범위 등에 따른 정치적 의도에 맞게 비서국과 전문부서 직책을 분리하여 운영했다. 김정은 시대 3기 중 비서국 성원 전원이 전문부서 부장을 겸직한 사례는 9기가 처음이다.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대 당 중앙위 구성과 비교해도 비서국·전문부서의 전원 '겸직제'는 거의 유일한 사례로 구분된다.

- (인적 개편) 중요 부서는 정통 당관료 선임, 정책부서는 전문성 안배
 - 조용원 등이 변동되었으나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군정지도부, 검사위원회 등 당사업 지도부서는 김재룡, 리일환 등 정통 관료로 중용
 - 정책지도부서인 경제부, 과학교육부, 민방위부, 법무부, 농업부, 건설정책부(추정) 등은 경력자 및 실무 관료 위주로 정비
 - 세대교체 차원에서 고령자는 최소화(한광상 경공업부장, 김승두 과학교육부장 등)하면서 50~60대를 위주로 구성

- (당 내부 강화) 전문부서 인사 중 김여정의 총무부장 임명이 주목
 - 김여정의 정치국 재임명, 전문부서 부장 임명으로 사실상 당 중앙위 ‘책임일꾼’으로써 당내 공식 지위와 역할 단계가 한 층 더 확대
 - 총무부 기구: △중앙당 총무부 △도·시·군당 총무부²⁴ △각급 당(정치)기관 총무부·총무과 등 중앙과 하부구조의 전당 기구체계로 운영
 - 주요 기능: △전당 방침집행사업 △당 지도기구 실무 운영 △당내 문헌·기요 관리 △당내 직무평가·행정업무 △주민 신소·청원 창구 관리 등 내부사업 실무부서로 기능(세부 사항 별첨 참조)²⁵
 - 종합적으로, 당중앙위원회 전문부서는 ‘전당과 체제 전반을 지도’하되, 총무부는 그 ‘전문부서를 관리·통제’하며 당내 관리·통제 강화²⁶

24 각급 당기관의 총무부(총무과)의 ‘당 내부사업 보장·집행’ 등의 실무적 성격에 따라 당위원회 책임비서, 조직비서의 기본 업무 수행도 직접적,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총무부장(과장) 적임자로는 주로 당·행정 실무가 높고 성실한(세평이 좋은) 인물이 선발된다. 여타 지도부서들에 비해 총무부 간부들의 근속연한도 비교적 길다. 대신 기관 내부 업무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의 특성상 당위원회 부서장 등 간부들, 직원(사무원, 노동자 등)들의 인식에 ‘불편한 부서’로 평가되기도 한다.

25 과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중앙당 총무부에서 부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1990년대 후반 최룡해가 청년동맹 중앙 1비서 당시 과오로 현직에서 해임되어 지방혁명화를 거쳐 중앙에 복귀한 이후, 2006년 황해북도 당책임비서로 임명되기 전까지 약 2년간 중앙당 총무부에서 부부장으로 근무했다. 부부장 당시 김정일에게 보고되는 각종 ‘충성의 편지’ 등 문서자료를 관리하며 중앙과 지방의 제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당사업 실무를 익혔다고 알려졌다.

26 김정은 총비서 유일영도체계 강화 방향에서 사실상 유일체제의 ‘이너서클’의 핵심으로 역할하는 김여정의 지위와 파위를 고려할 때 당 내부사업을 전담하는 총무부의 전반적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의 방침집행’을 전제로 당 중앙위 전문부서의 업무 추진 실태를 종합하는 자체가 해당 부서와 간부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김여정 총무부를 가장 불편해할 수 있는 영역은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등 당생활지도를 전담한 핵심부서들과, 하부구조의 도(직할시) 당책임비서들과 군부와 공안 등 주요 중앙기관의 수장급들로 예상된다.

IV 정치적 함의

- (전당 강화) '김정은 노동당화'와 체제 강화 차원의 중요한 계기
 - 노동당 전당대회는 △7차 당대회/체제 공식화 △8차 당대회/유일체제 강화 △9차 당대회/장기체제 기반 강화 등 시기별 특징 시현
 - 향후 5년간 '전당 강화' 방향은 노동당 중심의 일당 지배체제, 김정은 유일통치구조를 세련화하며 장기체제 기반 공고화에 집중

- (체제역량 강화) 당 지도력을 중심으로 권력구조와 엘리트 구성 정비
 - 노동당 중앙지도기관을 위시한 당적 지도력을 강화하고, 9기 국가 목표를 추진할 당·정·군 권력 엘리트 역량을 재정비
 - 한편, 내각·행정과 기간산업, 군사 등 일선 권력의 수시 변동은 노동당 중심의 체제구조의 난맥상과 취약성을 반영

- (정책성과) '김정은표 사회주의 전면적발전 고조기' 경제 성과가 관건
 - 지난 8기에 추진한 5개년계획의 진전과 성과를 기반으로 민생개선을 위시한 실질적인 경제 성과 등 정치·정책 수요 측면이 증대
 - 9기를 "사회주의 전면적발전 고조기"로 규정한 데 맞게 당대회에서 제시한 정책목표 달성 등 당의 지도력을 입증하는 문제가 긴급

- (제한성) 당 중심 통치구조의 제한성, 불리한 대내외 환경은 변수
 - 노동당 주도의 국정 시스템은 사실상 '유일통치체제의 집행기구'로 기능하며 구조적인 제한성·취약성을 노정, 9기의 방향성도 유사
 - △자력갱생 중심의 경제노선 △내부 동원력의 한계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대외환경 등 불리한 여건 속에 핵통치전략에 기반하여 "사회주의 전면적발전 고조기"의 실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요원함.

【별첨】

〈표 8〉 도(道) 당위원회 총무부 기구 및 기능

부서 구성		주요 업무 분담	비고
주요 업무 ·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당 내부사업 실무부서 ① 당의 방침 전달 · 침투체계 총괄(교시 · 지시 · 결정 · 명령 등) ② 당 지도기구 운영 실무 집행(대회, 전원회의, 정치국 등) ③ 지역 내 당기관 각종 문헌 · 문서관리 전담 ④ 도당위원회 업무수행 총괄(직무평가 · 사무 · 행정 · 내규집행) ⑤ 주민 신고청원 창구 접수 · 관리 전담 	총무부 부장 외, 종합과, 신소실만 부부장 편제 배치 (이하 과장 편제)
부서 구성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지역내 당의 방침 전달 · 침투체계 총괄(당 · 행정 · 안전 · 사법 등 유관기관 전체 대상) ▪ 도당위원회 부서별 방침 집행정형 종합 · 관리 ▪ 도당위원회 부서별 직능총화체계(직무수행) 종합 	지역내 각급 당 · 행정기관 포함
	종합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내 업무 총괄 ▪ 도당위원회 지도기구 운영 집행(대표회, 전원회의, 집행위원회, 비서처, 군사위원회, 안전위원회 등) ▪ 도당위원회 간부 업무 · 근무체계 관리(출퇴근 질서 등) 	도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당행정) 등 인적 · 관리 전담
	기요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당위원회 각종 문헌 · 문서 관리 ▪ 지역내 각급 당위원회 문헌 · 문서고(전시 · 재해 대비 등) 관리 ▪ 도당위원회, 지역 당위원회 당 간부, 당 지도기관 성원(당 · 행정간부 포함) 신분증 발급 · 관리 	내규 집행체계 전담 (연구보관 등)
	내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당위원회, 지역 내 각급 당위원회 통신 · 전산시스템 관리 ▪ 정부통신소(총비서 전용) 관리 업무 지원 	정부통신소 (호위사령부 소속 기구)
	신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각종 신고 · 청원 처리 업무(정기 · 비정기) 총괄 ◇ 역대 신고실 : 독립부서→검열위원회→조직지도부→총무부→검사위원회 (2021/8차 당규약) 등 기구체계 변화 ◇ 당내 신고 · 청원 ①검사소/노동당원 ②신소실/주민 체계 병설 · 운영 	시기별 기구 변경 부부장 직제 배치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행정) 도당위원회 내부사업 집행기능 외, 지역내 시 · 군당위원회 총무부 사업 집행 지도 전담 ▪ (책임비서, 조직비서 업무지원) 사실상 도당위원회 종합부서 기능 · 역할 수행, 업무상 영역과 부담 가중 ◇ 도당책임비서(서기(비서) 1명만 배치), 업무상 지원은 총무부 ▪ 통상 내부 실무부서로 당간부들의 '기피부서'로 평가 	당내 근속연한에서 상위부서 (간부부, 총무부 등)
기능 강화 가능성 ²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시대 당적 지위 · 기능 강화, 총무부 기능 수요 증가 ▪ △전당강화(5대노선) △유일영도 강화 △애민시책 중시 등 정책방향상 당내 실무부서의 기능 · 역할 중시 ▪ 김여정 총무부 △방침집행 △총비서 업무 지원 등 영역 확대 전망 	중앙당 총무부의 당중앙위 전문부서 직무평가 전담 포함

출처: 재북 당시 북한 정치기관 근무 경험에 근거하여 재구성.

27 제9기 제1차 전원회에서 “당의 정치적령도실현에서 필수적인 요구로 제기되는 당내기구사업에 대하여 토의하고 해당 결정서를 전원일치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중 “당의 정치적령도 실현에서 필수적인 요구”에 밀접한 기구는 △당 조직 · 규율(간부/규율 등) △당 내부사업 총괄(총무부 등) 부서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김근식, “김일성-김정일주의와 당·정·군관계 그리고 권력엘리트.” 『한반도포커스』,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36호, 2016, pp. 19-26.
- 김인태, “북한 노동당 지도체계의 구성과 운용: 시대별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34권 1호, 2025.
- 김인태, “김정은 시대 당정시스템의 운용과 주요 정책결정 사례 분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략보고」 September 2025, No. 344.
- 김일기, “북한 헌법 개정의 특징과 의미,” 『평화학연구』 제10권 제4호 (2009).
- 이종석·백학순, 『김정일 시대의 당과 국가기구』, 성남: 세종연구소, 2000.
- 오경섭, 『정치엘리트 응집력과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성남: 세종연구소, 2013.
-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선인, 2007.
- 『조선로동당 규약』, (1980, 2012, 2016, 2021).
- 『사회주의헌법』, (2009, 2016, 2019).
- 『로동신문』, 1960.1 ~ 2026.3
- 『조선중앙통신』, 2005.1~2023.3
- 『조선말대사전(1~4)』,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Abstract

Analysis of the Workers' Party Leadership Institutions and Power Elites Following North Korea's 9th Party Congress

Kim In-tae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 February, North Korea convened the 9th Party Congress and newly elected the 9th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WPK), the Party's central leadership body. Under the Party rules, the Central Committee serves a five-year term and comprises approximately 250 political, government, and military elites. It also organizes subordinate leadership bodies, including the Political Bureau, the Secretariat, and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This study analyzes changes in the Party's leadership institutions and power elites under the 9th Central Committee through comparison with the 7th and 8th Party Congresses held during the Kim Jong Un era.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9th Party Congress adopted a format that introduced limited adjustments to the traditional procedures of a Party congress while placing primary emphasis on reviewing and consolidating the current policy agenda. Second, the period of the 9th Central Committee was defined as a "phase of accelerated comprehensive socialist develop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haracterization, strengthening the Party as a whole was presented as a key political task. Third, the Party's leadership capacity was reinforced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the Party, state, and military power structure centered on the 9th Central Committee and its associated leadership bodies.

Taken together, the 9th Party Congress may be regarded as a significant political juncture that further consolidated the Workers' Party's system of singular dominance while advancing the consolidation of the Party under the leadership of Kim Jong Un.

Over the next five years, efforts to strengthen the Party are expected to focus on further refining a centralized governing structure centered on Kim Jong Un while consolidating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long-term regime stability. At the same time, the leadership is likely to prioritize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objectives presented at the 9th Party Congress. However, North Korea continues to face structural limitations stemming from its self-reliance-based economic strategy, weakening domestic mobilization capacity, and an uncertain international environment coupled with unfavorable external condition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prospects that the leadership institutions of the 9th Central Committee and the Party, state, and military elites will fully realize the decisions adopted at the Party Congress appear limited.

Keywords: 9th Party Congress, Workers' Party of Korea, Central Committee, single-party dominance, General Secretary Kim Jong Un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INSS

전략보고

March 2026

No. 373